

청소년의 선거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참여 경험 연구 - 온·오프라인 정치 및 온라인 청원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김 나 리**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형태와 국회의원 선거참여 간의 관계와 이 둘 간의 관계에서 정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가 만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 18세 청소년의 제21대 총선 선거참여 실태조사' 문항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오프라인 정치참여, 온라인 정치참여, 온라인 청원참여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첫째, 온라인 청원참여는 선거참여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온라인 청원참여와 선거참여 간의 관계에서 내적 및 외적 정치효능감은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청소년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이후 청소년의 정치 및 선거참여와 관련한 정책적 함의점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청소년 정치참여, 선거참여, 온라인 정치참여, 온라인 청원참여, 정치효능감

I. 서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치참여 기회가 제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9년 12월,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 연령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2019985)』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1980년 제8차 개헌을 앞두고 선거 연령 18세 인하를 주장한 이후 장장 40년 만에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만 18세 유권자 54만 8,986명에게 처음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권리가 주어졌으며, 청소년의 투표율은 평균 투표율(66.2%)보다 높은 67.4%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후 2022년에 열린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청소년 투표율은 각각 36.1%(평균 50.9%), 71.3%(평균 77.1%)로 평균에 밀리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는 참정권

* 귀한 심사평으로 본 논문의 발전에 기여해 주신 익명의 논문심사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의 심사과 출판 과정에서 애써주신 한국지방정부학회 편집위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주저자

이 주어진 후의 첫 투표였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지만 이후 관심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을 보면, 청소년 투표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우려가 향후 우리나라의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Edwards, 2007; Barnes & Virgint, 2010).

선거를 포함한 청소년의 정치참여 경험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고(김명정, 2010),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Verba et al., 1995; Dalton, 2014),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소년 세대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Ohme et al., 2020). 또한 초기에 투표 습관을 확립한 청소년은 정치적 태도와 참여 습관을 형성하여 향후 성인이 되어서도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Fraga & Holbein, 2020). 특히 첫 번째 선거는 공식적으로 정치에 입문하는 시점으로, 18~19세에 생애 첫 정치적 사건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rikson et al., 2002; Ohme et al., 2020에서 재인용). 이에 정치교육 확대, 정치참여 경험 증진 등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으나(Othman et al., 2022), 기존에 논의된 방안들은 현 세대의 청소년들의 참여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청소년이 정치와 직접적인 연결이 뚜렷하지 않은 비제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기에 청소년의 정치참여 연구 시 제도화되지 않은 형태의 참여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Maurissen, 2020). 실제 인터넷 세대의 청소년들은 온라인 청원, SNS, 포털 등에 정치적 의견 게시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청소년의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한 청소년 세대의 이해에 기반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지만, 지금까지 청소년의 선거참여와 온라인 등 변화하는 정치참여에 관련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는 선거참여와 관련해서는 2020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선거참여 기회가 3번(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지방선거)에 머물렀으며, 청원제도 등 온라인을 통한 정치참여 형태 또한 거듭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2020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생애 첫 투표권을 가졌던 만 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정치참여 형태가 국회의원 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정치참여 형태는 전통적으로 행해졌던 오프라인 정치참여와 인터넷 세대인 청소년들의 새로운 참여 형태인 온라인 정치참여에 주목하며, 특히 온라인 정치참여 중 온라인 청원참여의 영향을 구분하여 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온라인 청원을 온라인 정치참여와 구분하여 살펴보는 이유는 2020년 청소년 유권자의 첫 선거 당시 전자청원 플랫폼(‘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가 활성화되었던 반면 현 정부에서 도입한 청원 웹사이트(‘청원24’)의 청원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데 있다.¹⁾ 2017년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높은 온라인 청원참여에

1) 2017.8.19.~2020.7.31. 국민청원 총 청원 수 87만 8,690건(청와대, 2020). 청원24 2023년 12월 23일 사이트 창설 이후 2024년 5월 기준 9,986건(<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statics>, 접속일 2024.05.13)

힘입어 '2020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온라인 참여부문 공동 1위, 전자정부 발전 부분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한 바 있다(행정안전부, 2020a). 2017년 8월 온라인 청원이 첫선을 보인 이후 2019년 기준 18~24세(29.3%)가 가장 높은 게시판 방문율을 보일 정도로 청소년들의 참여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청와대, 2019). 2020년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온라인 청원참여에 적극적이었던 세대였으나, 2022년 새로운 정부가 취임한 이후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제도²⁾가 도입되면서 현재는 청소년의 온라인 청원참여가 축소된 측면이 있다. 이에 2017~2022년에 주요 온라인 정치참여의 장이었던 온라인 청원참여를 온라인 정치참여와 별도로 구분하여 2020년 선거참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각 참여 요인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다양한 정치참여 형태와 선거참여 간의 관계에서 내·외적 정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다. 스스로 정치 변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외적으로 인지하는 정치효능감은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선거참여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에 따른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요소로써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선거참여로 이어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선거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경험적 장을 만드는데 주요한 함의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 청소년 정치참여

청소년 참여는 교육정책 및 실행과 사회의 핵심쟁점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천정웅 외, 1997). 또한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거나 공동체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가나, 2009). 청소년 참여는 사회성 발달을 강화시키고, 시민적 유능성 및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는 등 청소년에게 다양한 차원에서 영향을 미친다(문성호, 2006). 특히 공공정책 및 서비스 등에서 보다 나은 의사결정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이해와 관심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김영지, 2004). 또한 청소년의 참여는 긍정적인 청년발전(positive youth development)을 예측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Rivera & Santos, 2016). 이렇듯 청소년의 참여 경험은 장차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김명정, 2010).

정치참여는 정치적 또는 시민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지식, 신념, 의견, 태도 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되며(Barrett, & Brunton-Smith, 2014), 정치 캠페인참여, 투표 등 정치적 의사

2) 온라인 국민청원 제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 사이트에서 서비스가 실시되었으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국민제안'으로 대체되었다. 국민제안은 2023년 12월 23일부터 '청원24' 서비스로 변경되어 청원 내용에 따라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 청원할 기관을 지정하여 개인청원과 공개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활동을 말한다(Verba et al., 1995; Zukin et al., 2006; Rivera & Santos, 2016).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학내 활동과 학교 외 활동으로 구분된다. 학내 활동은 교육과정에 근거해 시행되거나 교실풍토 등에서 영향을 받아 이뤄지며, 학교 밖 정치참여는 집회 및 시위 참여, 공직자 만남, 정치단체에서 활동, 정치적 사안 토의 및 토론, 청원서 작성 등이 해당된다(이윤주, 2015). 청소년에게 정치참여는 권한 부여 느낌, 강화된 정체성, 사회적 자본 등의 보상이 수반되며, 성인 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와 함께 정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는 데 따른 스트레스 등 정치참여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을 동반하기도 한다(Oosterhoff & Wray, 2020). 청소년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국가의 민주적 성숙도(Kitanova, 2020), 성별(Kitanova, 2020; Henn & Foard, 2014), 부모의 정치참여, 사회경제적 지위, 시민성 등의 부모요인(Beck & Jennings, 1982; Sani & Quaranta, 2015), 인터넷 사용(Rossi, 2009) 등이 보고되고 있다.

정치참여의 하나의 형태인 투표는 시민의 핵심적인 특성 중 하나인 사회의 규제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며, 이를 위해 인지력,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소속 및 정체성 등이 요구된다(Oosterhoff et al., 2022). 청소년들은 주로 18~19세에 실시되는 첫 번째 선거를 통해 공식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며(Erikson et al., 2002; Ohme et al., 2020에서 재인용), 초기에 투표 습관을 확립한 청소년은 정치적 태도와 참여 습관을 형성하여 향후 성인이 되어서도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에(Fraga & Holbein, 2020), 청소년기에 투표 참여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개인주의로 인한 무관심(McCormack & Doran, 2014; Kitanova, 2020), 정치 정보 부족(Tedesco, 2007), 정치인들의 비윤리적, 범죄 행위에 대한 노출로 인한 정치적 피로도(Borg & Azzopardi, 2022)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선거참여가 낮아지고 있어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청소년 선거참여와 관련된 논의는 주로 낮은 참여에 대한 우려와 원인 규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Edwards, 2007; Barnes & Virgint, 2010).

우리나라 역시 수십 년에 걸쳐 선거 연령 인하 논의가 있었음에도 2020년 이전까지 만 18세 청소년의 공직선거권을 보장하지 않았던 배경에도 청소년의 정치 정보 부족, 무관심 등으로 인해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크게 존재했던데 있다. 투표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청소년이 적절한 정치적 지식, 인지 능력, 독립성, 관심 및 생활 경험을 포함하여 투표할 수 있는 충분한 정치적 성숙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다(Oosterhoff et al., 2022).

반면 찬성하는 측에서는 참정권 확대의 세계적 추세, 교육수준의 확대,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높은 민주시민 의식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발표된 Othman et al.(202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유권자의 선거참여가 모든 연령층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정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청소년의 선거참여는 국가가 정부와 정책 형성에 사회의 모든 계층을 참여시키도록 하며, 투표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은 선거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창호(2020)의 연구결과

선거 기간 동안 주위에 투표참여를 권유한 청소년이 40.3%에 달했으며, 온라인 상에서 정당, 후보자의 정보를 살펴본 청소년은 34.7%로 나타났다. 제21대 총선 이후 경기도교육연구원(2020)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총선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18세 학생이 76.5%,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23.5%로 참여한 학생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투표행위에는 의무감(63.3%), 내적효능감(79.1%), 외적효능감(71.3%) 등이 반영되었으며, 부모나 교사, 친구 등 주위사람들보다 선거 공보물, 언론을 통해서 선거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선거권 획득이라는 제도적 변화를 통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자 선거 투표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온라인 정치참여

인터넷의 생성과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정치참여가 가능해지고 있다. 온라인 활동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참여로써, 인터넷에서 정치 관련 콘텐츠를 생성하고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정치적 인식, 행동,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으며, 다른 유권자와 상호작용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Anduiza et al., 2010). 특히 온라인 공간은 정치적으로 과소대표된 여성, 소수민족, 청소년, 저소득층의 참여를 높이고 있으며(Ruess et al., 2023), 다른 세대들보다 인터넷 접속시간이 높고, 확고한 정치적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을 위한 대안적인 정치참여 방식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적 공간으로 꼽혀왔다(Quintelier & Vissers, 2008; Vromen, 2008).

특히, SNS는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촉진하며, 정보를 탐색하고, 정치 사이트 및 뉴스 등 정치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수준을 증대시키는 주요 변수로 주목되어 왔다(Gibson et al., 2000; Quintelier & Vissers, 2008). 또한 SNS는 선거 캠페인, 시위 행사, 관심기반의 자발적 단체 창설을 위한 핵심 도구로 역할을 하며, 정치인 팔로우, 댓글 게시, 정치뉴스 전달 등의 온라인 정치참여 기회를 제공한다(Theocharis et al., 2023).

최근 온라인 정치참여는 전통적인 정치참여인 캠페인 참여, 투표 등을 넘어 해시태그, 투표인증샷 등의 콘텐츠 생성 기반의 참여와 온라인 봉사활동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물리적 참여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가령, 미투(#me too) 운동 등을 불러온 사회운동의 한 형태인 해시태그는 수평적 네트워크 참여를 기반으로 대중의 정치적 참여를 동원하는 역할을 하며, SNS를 통해 빠르고 넓게 확산되는 특성에 의해 정치적 참여를 높이는 특성이 있다(이동환 외, 2017; Azizah, 2023).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참여 모습을 공유 및 인증하는 투표인증샷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SNS를 통한 젊은 세대의 자발적인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서희정 & 이미나, 2012; 최윤규 & 이성원, 2014). 또한 인터넷은 자원봉사 형태에도 변화를 불러와 온라인 멘토링, SNS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한 이슈캠페인, 입법 촉진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이 현장의 자원봉사를 일부 대체하고 있다(정진경 & 천희, 2018; 송해

란 & 안소영, 2022).

온라인 정치참여와 관련된 주요 이론은 정치참여가 기술 사용을 주도한다는 자발적인 관점(voluntaristic perspective)과 기술 결정론적 접근 방식(techno-deterministic perspective)을 꼽을 수 있다(Calenda & Meijer, 2009). 자발적인 관점은 단지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정치적 참여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온라인 정치참여는 오프라인 정치참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기술 결정론적 접근 방식은 인터넷의 디자인과 사용 방식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온라인 서비스의 설계와 사용 패턴이 사람들이 특정 방식으로 정치참여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실제 저렴한 비용과 빠른 속도를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은 정부 및 정치인에게 전화, 직접, 편지, 이메일 등을 통한 의견 전달, 청원 서명, 기부금 납부 등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수행하였던 활동과 동등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Anduiza et al., 2009).

지금까지 온라인 활동과 정치참여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Seongyi & Woo-Young(2011)은 인터넷이 청소년이 정치 정보와 채널을 수집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Bosi et al.(2022)는 청소년의 불관용(intolerance)이 더 많은 온라인 정치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Hoffmann & Lutz(2021)은 인터넷 사용이 온라인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며, 오프라인 참여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규명하며 인터넷 사용이 기존의 참여 격차를 넓히거나 줄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Omotayo & Folorunso(2020)는 청소년들이 정치참여를 위해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트위터 순의 SNS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관련된 활동은 정치 캠페인, 정치인과의 소통, 정치토론, 이익단체 가입, 정치 관련 블로그 작성 등임을 밝혔다.

2) 온라인 청원참여

온라인은 정치적 지식 획득 비용을 낮추고 정치인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인과 유권자 간에 연결되는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Blumenau, 2021). 실제 지난 몇 년간 혁신적인 형태의 정치참여 중 일부는 E-청원(E-petition)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다(Vissers & Stolle, 2014).

사전적 의미의 청원은 국민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의 구제, 법률·명령·규칙의 개정 및 폐해, 공무원의 파면 따위의 일을 국회·관공서·지방 의회 등에 청구하는 일을 의미한다. 청원은 청원자와 서명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의견을 나타내기(Jalali et al., 2016),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인식된다(가상준 외, 2019).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원권은 헌법, 법률 등에 의해 성문화되어 있다(Lindner & Riehm, 2009).

하지만 기존의 청원 방식은 피해의 구제, 시정 및 징계 요구 과정, 청원 대표자 선임, 서명을 수집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돈, 사회 자본 등 그 절차와 방법이 까다롭고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여 청원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Hale et al., 2013). 이에 새로운 청원 방식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김성배, 2017), 온라인 청원제도가 주요 대안으로 떠올랐다.

IC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청원은 대중이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 이미 미국, 호주, 독일, 영국 등 각국의 전자정부의 상징이 되고 있다(Chen et al., 2019). 문서로 진행된 전통적 청원과 달리 청원자들은 온라인 청원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하며, 서명을 모으기 위한 형식적 절차를 따라 청원에 참여할 수 있다. 청원 서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청원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작성한 뒤 청원 동의서를 제출하며, SNS를 통해 타인에게 청원 내용을 공유하기도 한다(Jalali et al., 2016).

이처럼 온라인 청원제도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쉽게 표현하고, 민주적 이니셔티브와 정치적 대화에 참여하며, 사회적 영향과 정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Hagen et al., 2016; Chen et al., 2019). 또한 국민의 단체행동으로서 정책 의제를 도출하는 단계로 여겨지며(Chen et al., 2019), 각 정부 기관의 투명성, 개방성, 대응성에 영향을 미치면서(Lindner & Riehm, 2011), 젊은층을 비롯한 많은 참여자를 이끌고 있다(Panagiotopoulos et al., 2011).

실제 우리나라에서 2017년 첫 선을 보인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두드러졌다.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연령대는 18~24세(29.3%)였으며, 이들은 인권, 성평등 분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청와대, 2019). 온라인 청원제도는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쉽게 표현하고 정치적 대화에 참여하며, 사회적 문제, 정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Hagen et al., 2016; Chen et al., 2019), 청소년들은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소년의 청원서 서명 등의 온라인 정치 활동은 오프라인 정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oulianne & Theocharis, 2020)

2. 정치효능감

정치효능감은 정치 및 사회적 변화가 가능하며, 개인이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말한다(Campbell et al., 1954). 정치효능감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정치제도의 상응성, 즉 정치제도가 국민요구에 부응하여 적절한 조치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믿음체계의 척도로 정치참여의 중요한 동기변수로 작용한다(Almond & Verba, 1980).

Niemi et al.(1991)은 정치효능감을 정치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뜻하는 내적 효능감(internal efficacy)과 시민 요구에 대한 정부 당국과 기관의 대응성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외적 효능감(external efficacy)으로 구분하고 있다(Craig et al., 1990; Kenski & Stroud, 2006). 내적 효능감은 정치 활동과 과정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주관적인 인식이며, 외적 효능감은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다루고 수용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뜻한다(Lee, 2006). 정치효능감은 민주주의 사회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믿음과 가치의 핵심이며, 초년에 습득하여 시민들이 평생 정치에 참여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Moeller et al., 2014).

Buehler(1975)는 정치효능감의 원천을 문화적 결정론, 구조 결정론, 다원주의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문화결정론은 정치효능감의 기원을 사회화 과정의 특정 사회 집단에 두는 것이며, 구조결정론은 정치효능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지위를 강조한다. 즉,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정치적 효능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윈주의 관점은 개인의 정치효능감이 정치참여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Lee, 2006).

정치효능감과 참여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사회구성들의 적극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구성원들의 신뢰가 높아질 때 정치효능감이 긍정적 영향을 받아 적극적 참여를 유발한다는 가설은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Putnam 1993 & 2000; Timpone, 1998; Holbrook et al., 2001; Cox, 2003). 그 외에 Borg & Azzopardi(2022)의 연구 결과에서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효능감을 지닌 학생들이 투표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책임에 대한 수용 또한 자신의 투표가 민주적 절차 내에서 가치를 지닌다고 인식했을 때 증가하였다. 또한 정치효능감은 청소년의 교육과 성별이 인터넷 사용과 온라인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며(Hoffmann & Lutz, 2021), 청소년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참여에도 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ser et al., 2022). Kaid et al.(2007)는 청소년의 정치적 지식에 대한 인식 및 자신감과 투표권을 행사할 가능성 사이에 높은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3. 선행연구 한계

지금까지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관련한 연구는 학계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국내에서 진행된 청소년의 선거참여와 온라인 청원 등 정치참여 관련 연구는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관련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뤄진 것은 2020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단 3번의 선거에만 참여했으며, 청소년의 온라인 청원과 관련한 연구 또한 기존의 국민청원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선보여진 과정에서 관련 기록들이 사라진 데 있다.

이러한 한계에 기반하여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 선거와 관련된 연구는 선거공보에 대한 이해, 17대 대통령선거의 청소년 참여 경험, 19대 총선과 정치적 태도 등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구영산(2022)은 설문조사를 통해 고등학생 유권자들의 선거공보에 대한 관심도, 객관성, 선거공보 텍스트 이해 및 평가 등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명(65.4%)가 선거공보를 읽어봤으며, 88명(69.3%)이 선거공보의 난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88명(69.3%), 쉽다고 답한 학생은 22명(17.3%)이었다. 김영인(2011)은 17대 대통령선거의 청소년 참여 경험을 분석하였으며, 인지적 참여경험은 사회참여경험, 정치관심과 미디어접촉정도가, 행위적 참여경험에는 인지적 참여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신뢰변화에는 정치교육정도가 정의 영향을, 인지적 참여경험이 부의 영향을 보였다. 또한 박정서(2012)의 청소년의 19대 총선과 정치적 태도 함양에 대한 연구 결과, 정치적 대화가 정치효능감, 관심, 신뢰감, 참여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매스미디어 접촉은 정치적 관심, 효능감, 참여의식에 영향을 보였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치참여 실태조사 결과는

정치 정보 획득, 선거에 대한 관심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분석 결과, 중고등학생의 정치현안 관심도는 30%수준이었으며, 경제수준, 부모학력, 학업성적, 진보성향일수록 높은 관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문화예술체육분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정치행정에 낮은 관심을 보였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하여 정치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관련 정보 획득은 주로 SNS, 유튜브, TV뉴스를 이용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주요 미디어 이용률이 높았다. 청소년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낮은 수준이었으나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었다. 80%의 청소년이 대통령 선거 투표의향이 있었으나 국회의원과 교육감 선거는 60%만이 투표의향을 보였다.

유혜영(2023)은 청소년 1,753명을 분석하여 참여활동이 정치효능감과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 참여활동은 내적 정치효능감을 증가시켰으며, 합법적 참여의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기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청소년이 선거 및 정치 참여와 관련된 연구는 소수의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형태와 국회의원 선거참여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내·외적 정치효능감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증연구를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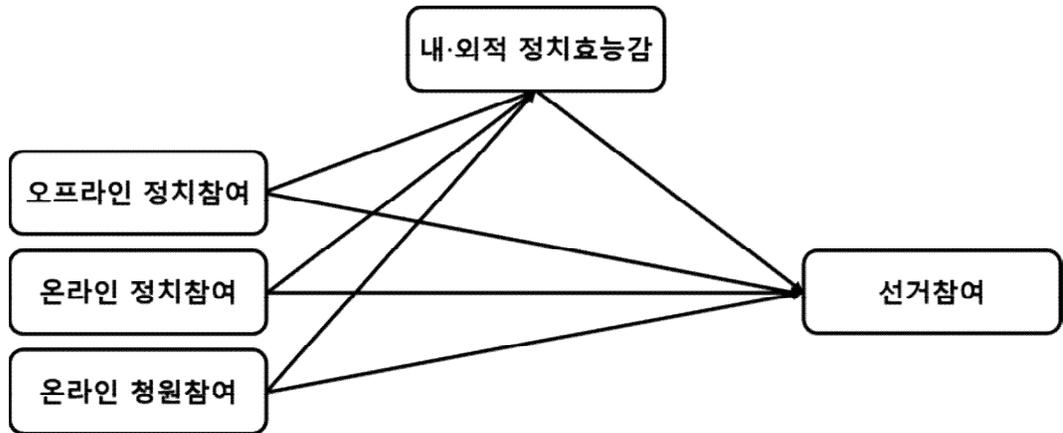
Ⅲ. 연구의 설계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와 한국청소년재단이 2020년 7월 15일~21일 설문조사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진행한 ‘만 18세 청소년의 제21대 총선 선거참여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조사 당시 전국의 만 18세인 국내 청소년 유권자 54만8,986명(2001년 4월17일~2002년 4월 16일 출생, 행정안전부, 2020b)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설문조사업체 온라인 패널의 무작위 추출을 통한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자기기입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자는 남녀 비율 각각 50%씩(각 200명)을 할당하여 표집하였으며, 조사기간에 최종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만 18세 청소년은 410명이다. 본 연구는 해당 설문에 참여한 41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2. 분석모형 및 가설

청소년의 다양한 정치참여 형태와 국회의원 선거참여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내·외적 정치효능감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틀

정치참여는 정치적 또는 시민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지식, 신념, 의견, 태도 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되며(Barrett, & Brunton-Smith, 2014),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학내 활동과 집회 및 시위, 공직자 만남, 캠페인 참여 등 학교 외 활동으로 구분된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경험은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고,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김명정, 2010; Verba et al., 1995; Dalton, 2014).

최근에는 인터넷 세대인 청소년의 특성에 기반하여 온라인이 청소년의 새로운 정치참여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신문, 정치 웹사이트, 대화형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정치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면서, 온라인은 청소년을 비롯하여 정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Di Gennaro & Dutton, 2006). SNS, 포털 등의 온라인 공간은 부모 및 학교 등의 제도적 통제를 받는 물리적 공간에 비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들 또한 빠르게 온라인 활용 기술을 습득하여 이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온라인 정치참여의 한 형태이자, 우리나라에서 2017년에 도입된 온라인 청원제도는 정부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쉬운 참여에 기반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창구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경험은 참정권을 행사하는 선거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Boulianne & Theocharis(2020), Hoffmann & Lutz(2021) 등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청원서 서명 등의 온라인 정치 활동과 오프라인 정치 활동 사이에 매우 강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한 바 있다. 또한 인터넷 탐색을 하고, 정치적 사이트 및 뉴스 등을 접할수록 정치 관련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에, 온라인 활동은 실제로 정치적 참여 수준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Gibson et al., 2000; Quintelier & Vissers, 2008).

정치 및 사회적 변화가 가능하며, 개인이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의미하는 정치효능감(Campbell et al., 1954)은 정치참여의 선행 변수로 연구되어 왔다. 정치효능감은 왜 어떤 사람들은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

요한 개념이다(Boulianne & Ohme, 2022). 실제 청소년의 정치적 지식에 대한 인식 및 자신감, 즉 정치효능감과 투표권을 행사할 가능성 사이에 높은 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었으며(Kaid et al., 2007), 내적 정치효능감은 정치적으로 도전적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촉진시켜 참여를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Valentino et al., 2009).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 청소년과 이들의 국회의원 선거참여와는 다른 맥락에서 진행된 연구들이지만, 정치효능감이 비교적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정치효능감이 정치참여와 선거참여, 그리고 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오프라인 정치참여는 선거참여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오프라인 정치참여와 선거참여 간에 내적 정치효능감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 1-2〉 오프라인 정치참여와 선거참여 간에 외적 정치효능감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온라인 정치참여는 선거참여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온라인 정치참여와 선거참여 간에 내적 정치효능감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 2-2〉 온라인 정치참여와 선거참여 간에 외적 정치효능감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 3〉 온라인 청원참여는 선거참여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온라인 청원참여와 선거참여 간에 내적 정치효능감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 3-2〉 온라인 청원참여와 선거참여 간에 외적 정치효능감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3. 변수의 측정과 분석방법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제21대 총선거와 국민청원에 참여한 청소년 개인을 분석단위로 통계자료를 구축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인 국회의원 총선참여는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선거 당일 참여, 사전선거 참여) 1, 미참여 0으로 코딩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오프라인 정치참여, 온라인 정치참여와 온라인 청원참여로 구성하였다. 오프라인 정치참여는 집회·시위 참여, 정당 가입, 정치인 만남, 선거 관련 자원봉사활동, 선관위 보조활동을 한 경험의 수로 측정하였다. 경험의 수는 때, 경험의 수는 설문조사 문항의 한계로 인해 오프라인 정치참여를 한 총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얼마나 다양한 정치참여를 경험했는지 여

부로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집회·시위 참여와 정당 가입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오프라인 정치 참여는 2로 측정하였다. 온라인 정치참여는 온라인 서명, 온라인 자원봉사, 기부, 인증샷 및 해시태그 운동, 관련 그룹 가입 참여 경험, 온라인 상에 댓글로 정치적 의견 개진, 온라인 상에 게시글로 정치적 의견 개진을 한 경험의 수로 측정하였다. 이때, 경험의 수는 오프라인 정치참여 변수의 측정과 같이 얼마나 다양한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 여부를 측정하였다. 가령 온라인 서명과 온라인 자원봉사에만 참여한 청소년의 온라인 정치참여는 2, 인증샷 및 해시태그 운동, 온라인 상에 댓글로 정치적 의견 개진, 온라인 상에 게시글로 정치적 의견 개진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온라인 정치참여는 3으로 코딩하였다.

온라인 청원참여는 온라인 청원에 얼마나 활발하게 혹은 활발하지 않게 참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0번 0, 1번 1, 2번 2, 3번 3, 4번 4, 5번 이상~10번 미만 5, 10번 이상~20번 미만 6, 20번 이상 7로 코딩하였다.

3) 매개변수

매개변수인 정치효능감은 내적 정치효능감과 외적 정치효능감을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내적 정치효능감과 외적 정치효능감 모두 리커트 7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약간 그렇지 않다 4 보통이다 5 약간 그렇다 6 그렇다 7 매두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1~3으로 응답한 청소년은 정치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5~7로 응답한 청소년은 정치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4) 통제변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소속, 성별, 본인과 부모의 정치성향, 부모의 학력, 소득수준, 인터넷 사용시간을 통제하였다. 성별은 남성 청소년 0, 여성 청소년 1로 코딩하였다. 소속은 더미변수로 구성하여 고등학생 1, 재학생 2, 대학생 3, 직장인 4, 무직자 5, 아르바이트생 6으로 코딩하였다. 본인과 부모의 정치성향은 진보 1, 중도 2, 보수 3, 기타 4로 설정하였으며, 기타에는 모른다, 없다는 응답이 포함된다. 부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1, 대학교 졸업 2, 대학원 졸업 3, 기타 4로 구성되며, 기타에는 모른다가 포함된다. 부모의 소득수준은 1 100만 원 미만, 2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3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4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5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6 5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 7 700만 원 이상으로 구성된다. 인터넷 이용시간은 하루 동안 청소년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평균시간으로 측정하였다.

〈표 1〉 변수의 측정과 지표

구분	변수	내용	측정
종속 변수	선거참여	21대 총선참여 여부	0 미참여 1 참여
독립 변수	오프라인 정치참여	집회·시위 참여, 정당 가입, 정치인 만남, 선거 관련 자원봉사활동, 선관위 보조활동	오프라인 정치참여 경험 수
	온라인 정치참여	서명, 온라인 자원봉사, 기부, 인증샷 및 해시태그 운동, 관련 그룹 가입 참여 경험, 온라인 상에 댓글로 정치적 의견 개진, 온라인 상에 게시글로 정치적 의견 개진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 수
	온라인 청원참여	국민청원 참여 경험	0 0번 1 1번 2 2번 3 3번 4 4번 5 5번 이상~10번 미만 6 10번 이상~20번 미만 7 20번 이상
매개변 수	내적 정치효능감	귀하는 정치에 참여할만한 시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약간 그렇지 않다 4 보통이다 5 약간 그렇다 6 그렇다 7 매우 그렇다
	외적 정치효능감	귀하의 정치 참여로 자신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약간 그렇지 않다 4 보통이다 5 약간 그렇다 6 그렇다 7 매우 그렇다
통제 변수	성별	0 남성 1 여성	
	소속	1 고등학생, 2 재학생, 3 대학생, 4 직장인, 5 무직자, 6 아르바이트생(더미변수 기준)	
	정치성향	본인	1 진보 2 중도 3 보수 4 기타(더미변수 기준)
		부	1 진보 2 중도 3 보수 4 기타(더미변수 기준)
		모	1 진보 2 중도 3 보수 4 기타(더미변수 기준)
	학력	부	1 고등학교 졸업 2 대학교 졸업 3 대학원 이상 4 기타(더미변수 기준)
		모	1 고등학교 졸업 2 대학교 졸업 3 대학원 이상 4 기타(더미변수 기준)
	소득수준	1 100만 원 미만 2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3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4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5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6 5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 7 700만 원 이상	
인터넷 이용시간	하루 동안의 인터넷 사용 평균시간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4.0을 활용하여 코딩과 데이터클리닝을 거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 제도의 주요변수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다. 청소년의 다양한 유

형의 정치참여와 국회의원 선거참여 간의 관계에서 내·외적 정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Baron and Kenny)과 소벨 테스트(Sobel-Test)를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가 활용한 조사의 응답자는 만 18세 청소년 410명이다. 조사대상자는 남성 174명(42.4%), 여성 236명(57.6%)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만 18세 청소년은 태어난 월에 따라 아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과 재수생, 대학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에 고등학생은 205명(50%)이며, 재수생은 10명(2.4%), 대학생 160명(39.0%), 직장인 9명(2.2%), 무직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은 각각 13명(3.2%)이다. 응답자의 정치성향은 진보가 138명(3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도 136명(33.2%), 기타 76명(18.5%), 보수 60명(14.6%)가 뒤를 이었다. 부의 정치성향은 중도가 95명(23.2%)로 가장 높았으며, 진보 89명(21.7%), 보수 76명(18.5%) 순으로 나타났다. 모의 정치성향 또한 중도가 118명(28.8%)로 가장 높았으며, 진보 81명(19.8%), 보수 53명(12.9%)로 나타났다. 부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84명(44.9%), 고등학교 졸업이 152명(37.1%)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79명(43.7%), 대학교 졸업 178명(43.4%)으로 미약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소득수준은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86명(21.0%)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이후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81명, 19.8%),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69명, 16.8%) 등이 잇따랐다. 응답자의 하루 기준 인터넷 사용시간은 1시간 이하가 42명(10.2%), 2시간 이상 4시간 이하가 197명(48.0%), 5시간 이상 6시간 이하가 81명(19.8%), 7시간 이상 9시간 이하가 51명(12.4%), 하루 10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학생은 39명(9.5%)으로 나타났다.

〈표 2〉 응답자의 특성

구분		응답자 수(%)	구분		응답자 수(%)
성별	남성	174명(42.4%)	부학력	고등학교 졸업	152명(37.1%)
	여성	236명(57.6%)		대학교 졸업	184명(44.9%)
소속	고등학생	205명(50%)		대학원 이상	39명(9.5%)
	재수생	10명(2.4%)		기타	35명(8.5%)
	대학생	160명(39.0%)	모학력	고등학교 졸업	179명(43.7%)
	직장인	9명(2.2%)		대학교 졸업	178명(43.4%)
	무직	13명(3.2%)		대학원 이상	19명(4.6%)
	아르바이트	13명(3.2%)		기타	34명(8.3%)

구분		응답자 수(%)	구분		응답자 수(%)
정치성향	진보	138명(33.7%)	소득수준	100만 원 미만	16명(3.9%)
	중도	136명(33.2%)		100~200만 원	35명(8.5%)
	보수	60명(14.6%)		200~300만 원	86명(21.0%)
	기타	76명(18.5%)		300~400만 원	81명(19.8%)
부정치성향	진보	89명(21.7%)		400~500만 원	69명(16.8%)
	중도	95명(23.2%)		500~700만 원	61명(14.9%)
	보수	76명(18.5%)		700만 원 이상	62명(15.1%)
	기타	150명(36.6%)		인터넷 사용시간	1시간 이하
모정치성향	진보	81명(19.8%)	2~4시간		197명(48.0%)
	중도	118명(28.8%)	5~6시간		81명(19.8%)
	보수	53명(12.9%)	7~9시간		51명(12.4%)
	기타	158명(38.5%)	10시간 이상		39명(9.5%)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오프라인 정치참여의 최솟값은 0, 최댓값은 3이며, 평균 0.322, 표준편차 0.571이다. 온라인 정치참여의 최솟값은 0, 최댓값은 6이며, 평균 1.202, 표준편차 1.225이다. 온라인 청원참여의 최솟값은 0, 최댓값은 7이며, 평균 3.178, 표준편차 2.340로 나타났다. 단, 온라인 청원이 0번 0, 1번 1, 2번 2, 3번 3, 4번 4, 5번 이상~10번 미만 5, 10번 이상~20번 미만 6, 20번 이상 7로 코딩되어, 평균 3.178이 평균 3번의 온라인 청원참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선거참여는 참여 여부를 측정하여 최솟값은 0, 최댓값은 1이며 평균 0.785 표준편차는 0.411이다.³⁾ 내적 정치효능감과 외적 정치효능감의 최솟값은 1, 최댓값은 7이며,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5.09/1.442와 4.30/1.464이다. 내적 정치효능감과 외적 정치효능감 모두 리커트 7 점 척도의 중간값이 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정치효능감이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표본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오프라인 정치참여	410	.00	3.00	.322	.5713
온라인 정치참여	410	0	6	1.202	1.225
온라인 청원참여	410	0	7	3.178	2.340
선거참여	410	0	1	.785	.4111
내적 정치효능감	410	1	7	5.09	1.442
외적 정치효능감	410	1	7	4.30	1.464

3) 실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18세 투표율은 67.4%였으나, 본 연구의 응답자의 투표율은 78.5%로 집계되어 10%p 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해당 설문조사가 온라인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투표를 행한 청소년이 과다 표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한계 중의 하나이다. 제21대 총선 이후 경기도 교육연구원(2020)이 수행한 연구에서도 총선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18세 학생이 76.5%로 나타난 바 있다.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첫 번째 독립변수인 오프라인 정치참여는 온라인 청원참여($r=.185, p<.001$), 내적 정치효능감($r=.168, p<.01$), 외적 정치효능감($r=.119, p<.05$)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독립변수인 온라인 정치참여는 온라인 청원참여($r=.172, p<.001$), 내적 정치효능감($r=.143, p<.01$), 외적 정치효능감($r=.121, p<.05$)과 정적인 관계가 드러났다. 온라인 청원참여는 선거참여($r=.187, p<.001$), 내적 정치효능감($r=.329, p<.001$), 외적 정치효능감($r=.154, p<.01$)과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으며, 선거참여는 내적 정치효능감($r=.302, p<.001$)과 외적 정치효능감($r=.288, p<.001$)과 정적인 관계가 도출되었다. 내적 정치효능감은 외적 정치효능감($r=.442, p<.001$)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표 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오프라인 정치참여	온라인 정치참여	온라인 청원참여	선거참여	내적 정치효능감	외적 정치효능감
오프라인 정치참여	1					
온라인 정치참여	.085	1				
온라인 청원참여	.185***	.172***	1			
선거참여	.076	.072	.187***	1		
내적 정치효능감	.168**	.143**	.329***	.302***	1	
외적 정치효능감	.119*	.121*	.154**	.288***	.442***	1

* $p<.05$, ** $p<.01$, *** $p<.001$, † $p<.10$

3. 회귀분석 결과

오프라인 정치참여, 온라인 정치참여, 온라인 청원참여가 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내외적 정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참여 경험과 선거참여 간의 관계에서 내적 정치효능감의 매개효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에서는 오프라인 정치참여($\beta=.218, p<.10$), 온라인 청원참여($\beta=.166, p<.001$)와 매개변수인 내적 정치효능감의 관계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오프라인 정치참여 경험과 온라인 청원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는 진보성향($\beta=.707, p<.01$)과 중도성향($\beta=.653, p<.01$)일 경우 기타성향일 경우에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대졸($\beta=.535, p<.10$)일 경우 기타응답보다

내적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단계에서는 온라인 청원참여($\beta=.019, p<.05$)가 종속변수인 선거참여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이 채택되었다. 이는 온라인 청원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선거에 참여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 오프라인 정치참여와 온라인 정치참여의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되지 않아 <가설 1>과 <가설 2>는 기각되었다.

통제변수는 성별($\beta=.079, p<.10$)이 선거참여에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청소년의 선거참여가 남성 청소년보다 활발한 것을 보여준다. 소속은 고등학생($\beta=.404, p<.001$), 재수생($\beta=.397, p<.05$), 대학생($\beta=.347, p<.01$)이 아르바이트생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성향은 진보성향($\beta=.135, p<.05$)과 보수성향($\beta=.128, p<.05$)일 경우 기타 응답보다 선거참여에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온라인 청원참여가 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서보다 낮게 나타나($\beta=.107 \rightarrow \beta=.044$), 온라인 청원참여가 선거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내적 정치효능감은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3-1>이 채택되었다. 반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정치참여와 선거참여 간에 내적 정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가정하였던 <가설 1-1>과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통제변수는 2단계에서와 같이 성별($\beta=.076, p<.10$)과 고등학생($\beta=.412, p<.001$), 재수생($\beta=.397, p<.05$), 대학생($\beta=.356, p<.01$)이 아르바이트생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 재수생, 대학생이 아르바이트생보다 선거참여에 적극적인 것을 뜻한다. 또한 소득수준이($\beta=-.024, p<.10$)이 낮을수록 선거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정치참여 경험과 선거참여 간의 관계와 내적 정치효능감의 매개효과

구분	Model 1 독립변수 → 매개변수				Model 2 독립변수 → 종속변수				Model 3 독립*매개변수 → 종속변수				
	B	S.E.	β	t(p)	B	S.E.	β	t(p)	B	S.E.	β	t(p)	
constant	3.454***	.503		6.863	.288+	.148		1.946	.058	.153		.377	
독립 변수	오프라인 정치참여	.218+	.121	.086	1.800	.043	.036	.060	1.222	.029	.035	.040	.830
	온라인 정치참여	.066	.056	.056	1.173	.006	.017	.017	.335	.001	.016	.003	.070
	온라인 청원참여	.166***	.032	.269	5.152	.019*	.009	.107	1.989	.008	.010	.044	.814
매개 변수	내적정치 효능감									.067***	.015	.234	4.551
통제 변수	성별	.043	.148	.015	.293	.079+	.043	.095	1.810	.076+	.042	.091	1.787
	고등학생	-.122	.395	-.042	-.308	.404***	.116	.492	3.470	.412***	.113	.501	3.629
	재수생	-.003	.569	.000	-.005	.397*	.167	.149	2.373	.397*	.163	.149	2.435
	대학생	-.134	.392	-.045	-.342	.347**	.116	.412	3.002	.356**	.113	.423	3.157
	직장인	-.148	.591	-.015	-.250	.161	.174	.057	.922	.170	.170	.061	1.004

구분	Model 1 독립변수 → 매개변수				Model 2 독립변수 → 종속변수				Model 3 독립*매개변수 → 종속변수			
	B	S.E.	β	t(p)	B	S.E.	β	t(p)	B	S.E.	β	t(p)
무직	-.681	.534	-.083	-1.275	.002	.157	.001	.010	.047	.154	.020	.306
진보성향	.707**	.224	.232	3.153	.135*	.066	.156	2.052	.088	.065	.102	1.354
중도성향	.653**	.213	.213	3.064	.128*	.063	.146	2.034	.084	.062	.096	1.357
보수성향	.419	.258	.103	1.624	-.004	.076	-.003	-.051	-.032	.074	-.027	-.429
부진보성향	.324	.350	.093	.927	-.009	.103	-.009	-.088	-.031	.101	-.031	-.305
부중도성향	-.036	.382	-.011	-.095	-.025	.113	-.026	-.225	-.023	.110	-.024	-.209
부보수성향	.062	.347	.017	.179	.021	.102	.020	.203	.017	.100	.016	.167
모진보성향	-.073	.346	-.020	-.210	-.002	.102	-.002	-.021	.003	.099	.003	.027
모중도성향	-.195	.361	-.061	-.541	-.014	.106	-.015	-.131	-.001	.104	-.001	-.009
모보수성향	.197	.364	.046	.542	.064	.107	.052	.593	.050	.104	.041	.482
부고졸	-.036	.294	-.012	-.124	.070	.086	.083	.813	.073	.084	.086	.862
부대졸	-.313	.310	-.108	-1.009	.109	.091	.132	1.196	.130	.089	.158	1.459
부대학원	-.059	.378	-.012	-.156	.152	.111	.109	1.369	.156	.109	.112	1.440
모고졸	.412	.292	.142	1.411	-.036	.086	-.044	-.419	-.064	.084	-.077	-.756
모대졸	.535†	.306	.184	1.751	-.014	.090	-.016	-.152	-.049	.088	-.060	-.560
모대학원	-.062	.453	-.009	-.138	-.148	.133	-.076	-1.110	-.144	.130	-.074	-1.106
소득수준	.067	.044	.079	1.545	-.020	.013	-.081	-1.544	-.024†	.013	-.100	-1.936
인터넷 이용시간	-.004	.025	-.008	-.152	-.009	.007	-.061	-1.204	-.009	.007	-.060	-1.199
R2	.205				.162				.214			
adjR2	.149				.105				.161			
F	3.654***				2.851***				4.019***			

*p<.05, **p<.01, ***p<.001, †p<.10

2) 정치참여 경험과 선거참여 간의 관계에서 외적 정치효능감의 매개효과

정치참여 경험과 선거참여 간의 관계에서 외적 정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에서는 온라인 청원참여($\beta=.060$, $p<.10$)와 매개변수인 외적 정치효능감의 관계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온라인 청원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외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는 진보성향($\beta=.803$, $p<.01$)과 중도성향($\beta=.551$, $p<.05$)일 경우 기타성향일 경우에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의 모형 2의 결과와 같다.

3단계에서는 온라인 청원참여와 선거참여 간에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온라인 청원참여가 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서보다 낮게 나타나($\beta=.107$ -) $\beta=.086$), 온라인 청원참여가 선거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외적 정치효능감은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3-2>가 채택되었으며,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정치참여와 선거참여 간의 관계에서 외적 정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설정하였던 <가설 1-2>과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통제변수는 2단계에서와 같이 성별($\beta=.083, p<.10$)과 고등학생($\beta=.391, p<.01$), 재수생($\beta=.404, p<.05$), 대학생($\beta=.321, p<.01$)이 선거참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정치참여 경험과 선거참여 간의 관계와 외적 정치효능감의 매개효과

구분		Model 1 독립변수 → 매개변수				Model 2 독립변수 → 종속변수				Model 3 독립*매개변수 → 종속변수			
		B	S.E.	β	t(p)	B	S.E.	β	t(p)	B	S.E.	β	t(p)
constant		3.123* **	.528		5.913	.288†	.148		1.946	.097	.151		.641
독립변수	오프라인 정치참여	.166	.127	.065	1.312	.043	.036	.060	1.222	.033	.035	.046	.955
	온라인 정치참여	.091	.059	.076	1.530	.006	.017	.017	.335	.097	.016	.000	.001
	온라인 청원참여	.060†	.034	.096	1.781	.019*	.009	.107	1.989	.015	.009	.086	1.631
매개변수	외적정치 효능감									.061***	.014	.218	4.376
통제변수	성별	-.068	.155	-.023	-.437	.079†	.043	.095	1.810	.083†	.043	.100	1.949
	고등학생	.201	.415	.069	.484	.404***	.116	.492	3.470	.391**	.114	.477	3.441
	재수생	-.109	.597	-.012	-.183	.397*	.167	.149	2.373	.404*	.164	.152	2.470
	대학생	.421	.412	.140	1.022	.347**	.116	.412	3.002	.321**	.113	.381	2.840
	직장인	.116	.621	.012	.186	.161	.174	.057	.922	.153	.170	.055	.902
	무직	-.769	.561	-.092	-1.371	.002	.157	.001	.010	.049	.154	.021	.316
	진보성향	.803**	.235	.260	3.413	.135*	.066	.156	2.052	.086	.065	.099	1.317
	중도성향	.551*	.224	.177	2.465	.128*	.063	.146	2.034	.094	.062	.108	1.519
	보수성향	.256	.271	.062	.945	-.004	.076	-.003	-.051	-.020	.074	-.017	-.263
	부진보성향	-.150	.367	-.042	-.410	-.009	.103	-.009	-.088	.000	.101	.000	.002
	부중도성향	-.104	.401	-.030	-.260	-.025	.113	-.026	-.225	-.019	.110	-.019	-.172
	부보수성향	.129	.364	.034	.355	.021	.102	.020	.203	.013	.100	.012	.128
	모진보성향	.296	.363	.081	.816	-.002	.102	-.002	-.021	-.020	.100	-.020	-.204
	모중도성향	.055	.378	.017	.146	-.014	.106	-.015	-.131	-.017	.104	-.019	-.167
	모보수성향	.267	.382	.061	.698	.064	.107	.052	.593	.047	.105	.039	.451
	부고졸	-.421	.308	-.139	-1.366	.070	.086	.083	.813	.096	.085	.113	1.134
	부대졸	-.324	.326	-.110	-.994	.109	.091	.132	1.196	.129	.089	.156	1.444
	부대학원	-.004	.397	-.001	-.010	.152	.111	.109	1.369	.153	.109	.109	1.403
	모고졸	1.027* *	.307	.348	3.350	-.036	.086	-.044	-.419	-.099	.085	-.120	-1.161
	모대졸	.799*	.321	.271	2.491	-.014	.090	-.016	-.152	-.063	.089	-.076	-.706
모대학원	.517	.475	.074	1.087	-.148	.133	-.076	-1.110	-.180	.130	-.092	-1.377	
소득수준	-.060	.046	-.069	-1.311	-.020	.013	-.081	-1.544	-.016	.013	-.066	-1.284	
인터넷 이용시간	-.042	.026	-.083	-1.627	-.009	.007	-.061	-1.204	-.006	.007	-.043	-.865	
R ²		.202				.162				.161			
adjR ²		.146				.105				.104			
F		3.585***				2.851***				2.816***			

*p<.05, **p<.01, ***p<.001, †p<.10

소벨테스트(Sobel-Test) 분석 결과와 가설 검증 결과는 각각 <표 7>, <표 8>과 같다. 온라인 청원 참여와 선거참여 간의 관계에서 내적 정치효능감($Z=3.385$, $p<.001$)과 외적 정치효능감($Z=1.636$, $p<.1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소벨 테스트를 통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Z	p
온라인 청원참여 → 내적 정치효능감 → 선거참여	3.385	0.001***
온라인 청원참여 → 외적 정치효능감 → 선거참여	1.636	0.10+

* $p<.05$, ** $p<.01$, *** $p<.001$, + $p<.10$

〈표 8〉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검증결과	
가설 1-1	오프라인 정치참여 → 내적 정치효능감 → 선거참여	기각
가설 1-2	오프라인 정치참여 → 외적 정치효능감 → 선거참여	기각
가설 2-1	온라인 정치참여 → 내적 정치효능감 → 선거참여	기각
가설 2-2	온라인 정치참여 → 외적 정치효능감 → 선거참여	기각
가설 3-1	온라인 청원참여 → 내적 정치효능감 → 선거참여	채택
가설 3-2	온라인 청원참여 → 외적 정치효능감 → 선거참여	채택

V. 결론 및 제언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청소년의 선거권이 만 18세로 하향되었으며,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청소년과 선거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20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생애 첫 투표권을 가졌던 만 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정치참여 형태가 국회의원 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 정치참여, 온라인 정치참여, 온라인 청원참여를 독립변수로, 국회의원 선거참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내·외적 정치효능감을 매개변수로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성별, 소속, 본인과 부모의 정치성향,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 인터넷 사용시간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독립변수 중 온라인 청원참여만이 종속변수인 선거참여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청원에 많이 참여할수록 선거참여에 적극적임을 의미한다.

둘째, 온라인 청원참여와 종속변수인 선거참여 간의 관계를 정치효능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적 정치효능감과 외적 정치효능감 모두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온라인 청원참

여와 선거참여 간의 관계에서 내·외적 정치효능감이 완전매개 효과를 보인 것은 청소년이 자신의 정치적 능력과 영향력을 높게 평가할수록, 또한 자신의 목소리가 실제 정치에 반영될 것이라는 믿음이 강할수록 온라인 청원에 참여하는 경향이 더 강하며, 이는 실제 선거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정치효능감이 정치참여와 선거참여 간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와의 관계에서는, 오프라인 정치참여와 온라인 청원참여가 내적 정치효능감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프라인 정치참여와 온라인 청원참여에 적극적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치적 능력과 영향력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외적 정치효능감과외의 관계에서는 온라인 청원참여만이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검증되었는데, 이는 온라인 청원참여에 적극적인 청소년이 자신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것이라는 믿음이 높은 것을 뜻한다.

넷째, 통제변수는 성별과 소속, 본인의 정치성향이 선거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참여가 남성 청소년의 참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른 정치참여에 관한 최근 연구결과를 뒷받침한 것으로 Henn & Foard(2014) 등 2010년대 초반 이전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남성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Grasso & Smith(2022) 등의 최근 연구에서는 여성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남성 청소년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도 이러한 연구결과의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소속에 따른 분석은 고등학생, 재수생, 대학생이 아르바이트생보다 선거참여에 적극적인 것을 보여준다. 또한 본인의 정치성향이 진보와 중도일 경우 기타응답자보다 선거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진보성향인 청소년이 정치현안 관심도가 높다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단 부모의 정치성향, 학력, 소득수준 등의 영향은 없거나 미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 세대인 최근 청소년들은 부모 등 주위 사람들보다 언론, 온라인 콘텐츠 등을 통해서 선거 관련 정보에 더욱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경기도교육연구원, 2020).

다섯째, 오프라인 정치참여와 온라인 정치참여와 선거참여 간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정치참여가 온라인 청원참여보다 활발하지 않은 결과로 짐작할 수 있다. 해당 설문조사가 진행된 만 18세 청소년의 첫 투표권이 주어진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정치참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SNS,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온라인 정치참여보다 온라인 청원참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 국민청원의 특성에 의해 뒷받침된다. 2017년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통해서 쉽게 참여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들이 관심이 높았던 인권, 성평등 분야의 청원주제는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되며 사회이슈화 되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 많았다. 해시태그, 온라인 인증샷, 온라인 상에 댓글로 정치적 의견 개진, 온라인 상에 게시글로 정치적 의견 개진 등의 온라인 정치참여는 미투운동 등 특정 사건이 있거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혹은 청소년 자신이 관심있는 정치현안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온라인 청원참여는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갖가

지 화제를 불러모으며 관심과 참여를 이끈 바 있으며, 이는 일반 국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의 청원 참여를 높인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주어진 첫 번째 선거에서 기존의 정치참여 경험과 내·외적 정치효능감을 기반으로 선거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거참여에 영향을 미친 정치참여 경험은 온라인 청원참여로 제한된 것으로 나타나 오프라인과 온라인 정치참여 경험을 높여 정치참여의 다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의 입시 위주의 교육을 넘어 민주주의 의식 함양, 시민 및 정치참여 경험 증진 등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 제공, 가정에서의 부모의 정치참여 경험 지원, 관련 시민 단체의 활동 참여, 청소년 의회 경험 확대, 온라인 정치참여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둘째, 온라인 청원참여가 선거참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바 온라인 청원 서비스와 같은 정치참여 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참여하기 쉬운 정치참여 공간인 온라인 청원 플랫폼은 정치와 정책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이와 연계된 집회, 캠페인 등의 오프라인 정치참여와 해시태그, 정치커뮤니티 가입 등 온라인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온라인 청원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이끄는 주요한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선거참여에 내·외적 정치효능감이 완전 매개효과를 보인 것은 단순히 정치참여의 경험이 선거참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청소년 자신이 자신의 정치적 능력과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자신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것이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에 청소년의 정치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교육을 통한 시민성 제고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Othman et al., 2022).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선거참여에 초점을 맞춰 둘 간의 관계와 매개효과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다양한 연령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연구대상이 만 18세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 실제 선거의 투표율보다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투표율이 높게 측정된 점 등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참고문헌

- 가상준·박진수·유성진·이한수. (2019). 한국 국회 청원 제도 연구. 동서연구, 31, 47-75.
- 경기도교육연구원. (2020). 18세 선거권이 남긴 교육의 과제. 1-35.
- 구영산. (2022). 선거공보에 대한 고등학생 유권자의 흥미, 이해, 평가. 청람어문교육, 87, 103-143.
- 김명정. (2010). 참여지향적 청소년 정치교육의 과제. 시민청소년학연구, 1, 5-28.
- 김성배. (2017). 청원권의 기원과 청원법의 개선방향. 세계헌법연구, 23(3), 179-216.
- 김영인. (2011). 청소년의 제 17 대 대통령선거 참여경험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8(3), 1-26.

- 김영지. (2004). 청소년참여의 동향과 실제. 청소년문화포럼, 10, 11-36
- 문성호. (2006). 정책과정에서의 청소년참여 확대방안의 모색. 청소년학연구, 13(6), 201-219
- 박가나. (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73-306
- 박정서. (2012). 19 대 총선에 관한 청소년의 정치적 대화와 매스미디어 접촉이 정치적 태도 함양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연구, 44(3), 1-28.
- 서희정·이미나. (2012). 트위터 투표 인증샷을 통해 본 젊은 세대의 투표 참여와 선거 문화.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399-420.
- 송해란·안소영. (2022).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학생 자원봉사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9(9), 183-207.
- 유혜영. (2023). 청소년 참여 활동이 내적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 법교육연구, 18(2), 75-110.
- 이동환·강내원·전종우. (2017). SNS 를 통한 시민 사회운동의 공론화 과정 "# 그런데최순실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4(2), 83-123.
- 이윤주. (2015).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천중심 기능학습의 필요성-사회과교육에서의 청소년 정치참여 연구동향을 기반으로. 시민교육연구, 47(2), 85-113.
- 이창호. (2020). 선거법개정에 따른 청소년정책 및 활동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25.
- 정진경·천희. (2018). 온라인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봉사활동 특성에 관한 연구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원봉사자의 비교. 시민사회와 NGO, 16(1), 49-84.
- 천정웅·김영지·임지연 (1997). 청소년참여의 세계적 동향. 청소년연구정보자료, 1-148
- 청와대. (2019). '데이터로 보는 국민청원, 국민이 묻고 정부가 답한다'
- 청와대. (2020). 국민과 함께한 국민청원 3년.
- 최윤규·이성원. (2014). 트위터와 매스 미디어의 정치정보 이용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연구, 17, 1-19.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96.
- 행정안전부. (2020a). 국제연합(UN), 2020년 전자정부평가 발표. 보도자료(2020.07.11).
- 행정안전부. (2020b).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 총 4,399만 4,247명. 보도자료(2020.04.05).
- Almond, G. & Verba, S, (1980). The Civic Culture Revisited. Boston: Little & Brown Company.
- Anduiza, E., Cantijoch, M., & Gallego, A. (2009).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Internet: A field essay.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2(6), 860-878.
- Anduiza, E., Gallego, A., & Cantijoch, M. (2010).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in Spain the impact of traditional and Internet resource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 Politics, 7(4), 356-368.
- Azizah, N. (2023). Social movement as a form of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in social media. JPPI (Jurnal Penelitian Pendidikan Indonesia), 9(4), 46-55.

- Barnes, A., & Virgint, E. (2010). Youth Voter Turnout in Canada Trends and Issues. Library of Parliament.
- Barrett, M., & Brunton-Smith, I. (2014). Political and civic engagement and participation: Towards an integ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Civil Society*, 10(1), 5-28.
- Beck, P. A., & Jennings, M. K. (1982). Pathways to particip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6(1), 94-108.
- Blumenau, J. (2021). Online activism and dyadic representation Evidence from the UK E-petition system.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46(4), 889-920.
- Borg, M., & Azzopardi, A. (2022). Political interest, recognition and acceptance of voting responsibility, and electoral participation young people's perspective. *Journal of Youth Studies*, 25(4), 487-511.
- Bosi, L., Lavizzari, A., & Portos, M. (2022). The impact of intolerance on young people's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s*, 42(1), 95-127.
- Boulianne, S., & Theocharis, Y. (2020). Young people, digital media, and engagement A meta-analysis of research.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38(2), 111-127.
- Buehler, M.H. (1975).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discontent, and voting turnout among Mexican-Americans in Michigan [Ph.D. dissertation].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 Calenda, D., & Meijer, A. (2009). Young people, the Interne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findings of a web survey in Italy, Spain and The Netherland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2(6), 879-898
- Campbell, A., Gurin, G., & Miller, W. E. (1954). The voter decides.
- Chen, Y., Deng, S., Kwak, D. H., Elnoshokaty, A., & Wu, J. (2019). A multi-appeal model of persuasion for online petition success: A linguistic cue-based approach.
- Cox, M. (2003). "When trust matters: Explaining differences in voter turnout."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1:757-770.
- Craig, Stephen C., Niemi, Richard G. and Silver, Glenn E. (1990).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A Report on the NES Pilot Study Items', *Political Behavior*, 12, 289-314.
- Dalton, R.J. (2014). *Citizen Politics –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6th ver. Washington: QR Press.
- Di Gennaro, C., & Dutton, W. (2006). The Internet and the public Online and offline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United Kingdom. *Parliamentary affairs*, 59(2), 299-313.
- Edwards, K. (2007). From deficit to disenfranchisement reframing youth electoral participation. *Journal of youth studies*, 10(5), 539-555.
- Erikson, R. S., M. B. Mackuen, and J. A. Stimson. 2002. *The Macro Po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aga, B., & Holbein, J. (2020). Measuring youth and college student voter turnout. *Electoral*

- Studies, 65, 102086.
- Grasso, M., & Smith, K. (2022). Gender inequalities i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ngagement among young people in Europe Are young women less politically engaged than young men. *Politics*, 42(1), 39-57.
- Gibson, R. K., Howard, P. E., & Ward, S. (2000). Social capital, Internet connectednes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 four-country stud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Québec, Canada.
- Hagen, L., Harrison, T. M., Uzuner, Ö., May, W., Fake, T., & Katragadda, S. (2016). E-petition popularity: Do linguistic and semantic factors matter?.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33(4), 783-795.
- Hale, S. A., Margetts, H., & Yasseri, T. (2013). Petition growth and success rates on the UK No. 10 Downing Street website. In *Proceedings of the 5th annual ACM web science conference*. 132-138.
- Henn, M., & Foard, N. (2014). Social differentiation in young people's political participation: the impact of social and educational factors on youth political engagement in Britain. *Journal of Youth Studies*, 17(3), 360-380.
- Hoffmann, C. P., & Lutz, C. (2021). Digital divides in political participation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media self-efficacy and privacy concerns. *Policy & Internet*, 13(1), 6-29.
- Holbrook, A. L., Krosnick, J. A., Visser, P. S., Gardner, W. L., & Cacioppo, J. T. (2001). "Attitudes toward presidential candidates and political parties: Initial optimism, inertial first impressions, and a focus on flaw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930-950.
- Jalali, M. S., Ashouri, A., Herrera-Restrepo, O., & Zhang, H. (2016). Information diffusion through social networks The case of an online petition.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44, 187-197.
- Kaid, L. L., McKinney, M. S., & Tedesco, J. C. (2007). Introduction Political information efficacy and young voter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0(9), 1093-1111.
- Kenski, K., & Stroud, N. J. (2006). Connections between Internet use and political efficacy, knowledge,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0(2), 173-192.
- Kitanova, M. (2020).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EU evidence from a cross-nat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Studies*, 23(7), 819-836.
- Lee, K. M. (2006). Effects of Internet use on college students' political efficacy. *Cyberpsychology & Behavior*, 9(4), 415-422.
- Lindner, R., & Riehm, U. (2009). Electronic petitions and institutional modernization. International parliamentary e-petition systems in comparative perspective. *JeDEM-eJournal of eDemocracy and Open Government*, 1(1), 1-11.

- Maurissen, L. (2020). Political efficacy and interest as mediators of expected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Belgian adolescent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24(4), 339-353.
- McCormack, A., & Doran, C. (2014). Apathetic or Engaged Exploring Two Paradigms of Youth Civic Engagement in the 21st Century. *The ITB Journal*, 15(2), 4.
- Moeller, J., De Vreese, C., Esser, F., & Kunz, R. (2014). Pathway to political participation: The influence of online and offline news media on internal efficacy and turnout of first-time voter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8(5), 689-700.
- Niemi, R. G., Craig, S. C., & Mattei, F. (1991). Measuring internal political efficacy in the 1988 National Election Stud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 1407-1413.
- Ohme, J., Marquart, F., & Kristensen, L. M. (2020). School lessons, social media and political events in a get-out-the-vote campaign: successful drivers of political engagement among youth?. *Journal of Youth Studies*, 23(7), 886-908.
- Omotayo, F., & Folorunso, M. B. (2020). Use of social media for political participation by youths. *JeDEM-eJournal of eDemocracy and Open Government*, 12(1), 132-157.
- Oosterhoff, B., & Wray-Lake, L. (2020). Risky politics Associations between adolescent risk preference and political engagement. *Child development*, 91(4), e743-e761.
- Oosterhoff, B., Wray-Lake, L., & Hart, D. (2022). Reconsidering the minimum voting age in the United State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7(2), 442-451.
- Oser, J., Grinson, A., Boulianne, S., & Halperin, E. (2022). How political efficacy relates to online and offline political participation A multilevel meta-analysis. *Political Communication*, 39(5), 607-633.
- Othman, I. W., Ibrahim, M. A., & Esa, M. S. (2022). Democratization and Mature Elections: A Study of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in Voters 18 and Automatic Voter Regist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Government and Communication*, 7(29), 600-622.
- Panagiotopoulos, P., Sams, S., Elliman, T., & Fitzgerald, G. (2011). Do social networking groups support online petitions?. *Transforming Government: People, Process and Policy*, 5(1), 20-31.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Corp.
- Quintelier, E., & Vissers, S. (2008). The effect of Internet use on political participation An analysis of survey results for 16-year-olds in Belgium.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6(4), 411-427.
- Rivera, R., & Santos, D. (2016). Civic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 lifestyle analysis for positive youth developmental programs. *Children & Society*, 30(1), 59-70.
- Rossi, F. M. (2009).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is this the end of generational cleavage. *International sociology*, 24(4), 467-497.
- Ruess, C., Hoffmann, C. P., Boulianne, S., & Heger, K. (2023).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the evolution of a concept.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26(8), 1495-1512.
- Sani, G. M. D., & Quaranta, M. (2015). Chips off the old blocks The political participation patterns of parents and children in Italy. *Social science research*, 50, 264-276.
- Seongyi, Y., & Woo-Young, C. (2011). Political participation of teenagers in the information era.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9(2), 242-249.
- Tedesco, J. C. (2007). Examining Internet interactivity effects on young adult political information effic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0(9), 1183-1194.
- Theocharis, Y., Boulianne, S., Koc-Michalska, K., & Bimber, B. (2023). Platform affordance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how social media reshape political engagement. *West European Politics*, 46(4), 788-811.
- Timpone, R. J. (1998). "Structure, behavior, and voter turnout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145-158.
- Valentino, N. A., Gregorowicz, K., & Groenendyk, E. W. (2009). Efficacy, emotions and the habit of participation. *Political Behavior*, 31(3), 307-330.
- Verba S, Schlozman KL, Brady HE.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Vol. 4).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 Vissers, S., & Stolle, D. (2014). The Internet and new mod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online versus offline participa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7(8), 937-955.
- Vromen, A. (2008). Building virtual spaces Young people, participation and the Internet. *Australian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43(1), 79-97.
- Zukin, C., Keeter, S., Andolina, M., Jenkins, K., & Carpini, M. X. D. (2006). *A new engagement?: Political participation, civic life, and the changing American citizen*. Oxford University Press.

김나리: 런던정경대(LSE)에서 Management of Information Systems and Digital Innovation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디지털 보건·복지·사회정책, 데이터 정책, 전자정부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공공부조 집행 과정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역할과 한계(2023)”, “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변동과정 분석(2024)”, “보건의료 개인정보 유출 및 민영화 우려가 데이터 공유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2024)” 등이 있다. (kimnari2014@gmail.com).

Abstract

A study on political participation experiences that influence youth participation
in election
– Focusing on online·offlin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online petition participation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articipation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As a result of conducting a study setting offline political participation,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online petition participation as independent variables, First, online petition participa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election participation. Second,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efficacy were found to have a ful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petition participation and election participa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youth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elections.

Keywords: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election,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online petition,
political efficacy